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遺子滿籩金 유자만영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택침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시조(始祖) 판서공(諱 唐) 세일사 봉행



2023. 11. 14 (화요일, 음력 10월 2일) 12시.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산85번지(광릉 1길 23) 광주이씨 시조 판서공(諱 唐) 묘소에서,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 속에 세일사(1369년 서거)가 성대히 봉행되었다. 서울에서 참배 후손들을 태운 임대버스가, 아침 7시 30분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출발하여, 11시 30분경 묘역에 도착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임대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해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온 450여 명의 봉행 후손들이 묘역을 가득 메웠다. 금년 세일사는 3년여에 걸친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식되어, 오랜만에 만난 종인들은 반가움과 끈끈한 혈육의 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였다.

전날부터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제수준비는 물론 많은 종인들이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 점심식사 등 행사 준비를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서둘러 진행 분정을 위한 협의와 준비가 끝나고, 어느덧 봉행 예정 시간인 12시가 되었다. 곧 묘역 주변 장내가 정리되고, 제례를 봉행하기 위해 참배객들은 묘전(墓前)에 올라 정렬하였다. 대종회 양재 총무이사의 참석 내·외빈 소개와, 주영 회장의 인사가 있은 후, 주병 문화이사의 제관 분정 내역 발표를 시작으로 제례가 봉행 되었다. 제례는 초헌관에 대종회 주영 회장, 아헌관에 영천최씨 최사간(司諫 崔元道)

의 후손 최정한 선생, 종헌관에 제례 집례 지파인 좌통례공파 택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좌통례공파 칠곡 집성 종중의 수생 대구경북종친회장의 집례에 따라 독축에 택후 칠곡종회 부회장, 집사에 칠곡종회 상철, 태석, 수호, 수덕 현종이 맡아,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봉행하였다.

제례 봉행을 끝낸 제관 및 참배 후손들은, 시조공의 묘소 뒤에 위치한, 최사간의 모친 영천이씨 묘소에 제물을 진열하고 예를 올렸다. 이는 수백년간 이어져 온 보은지정(報恩之情)의 절차이기도 하다. 제례 봉행을 모두 마친 종인들은, 묘소수호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뷔페식점심식사와 음복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지정을 나누는 흐뭇한 시간을 가진 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2시경 각자의 교통편으로 귀가 길에 올랐다. 이날 제례 봉행에 포와 제주를 봉헌해 주신 영천최씨 문중과, 제

주를 봉헌해 주신 목사공파 우윤공 종회에 감사를 드리며, 제례 행사를 위해 봉사해 준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 및 가족, 칠곡종친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시조공(始祖公, 증 판서 諱 唐)의 탄생하신 연도는 알지 못한다.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세거한 지 몇 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대로 재사현인(才士賢人)이 많았음에도 드러나지 않다가, 고려말에 이르러 휘 당(諱 唐)께서 과거에 응시하여 국자감 생원(國子監 生員)이 되면서, 광주를 관향으로 하는 씨족이 신흥사대부로 성장하게 되니, 광주이씨(廣州李氏)이다. 광주이씨를 이야기할 때, 둔촌(諱 集) 선생과 부친이신 판서공(判書公 諱 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광주이씨 가문은 실제 존재했었



는지조차 불확실할 정도로, 소목이 전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고려말에 이르러 광주의 향리였던 판서공(諱 唐)이,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중소지주로서, 국자감(國子監) 생원(生員)에 급제하고, 당시 광주 목사의 딸인 인화씨(仁華李氏)와 혼인하면서,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신흥사대부로 변장하게 되었는데, 두 분의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설화로 전해오고 있다.

판서공은 광주목사(廣州牧使)의 딸인 인화씨(仁華李氏)와의 사이에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 인령(諱 仁齡)은 경선고사공(慶先庫使公), 둘째 아들 원령(諱 元齡)은 둔촌선생(遁村先生), 셋째 아들 희령(諱 希齡)은 지군사공(知郡事公), 넷째 아들 자령(諱 自齡)은 십운과공(十韻科公), 다섯째 아들 천령(諱 天齡)은 보현과공(補賢科公)으로, 우리 광주이씨 발흥(發興)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오자등과(五子登科)를 이루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형제 중 둘째인 둔촌선생의 후손들과 넷째인 십운과공의 후손들만이 그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공민왕 17년(1368) 둘째 아들 둔촌(諱 集)선생이 역승(逆僧) 신돈(辛旽)의 만행을 비판하고,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자, 노령(老齡)에 아들의 등에 업혀,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이동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문경새재를 넘어 경상도 영천

에 이르러, 둔촌의 동년(同年)인 천곡(泉谷) 최원도 가(崔元道 家)에 피신하여, 그의 다락방에 은둔하여 생활하던 중, 이듬해에 돌아가시게 되니, 최동년(崔同年)은 자신의 못자리에 정성껏 예의를 갖추어 모셨다. 천곡은 둔촌의 부(父)를 친부 모처럼 봉양하고, 둔촌 부자도 자기 집처럼 마음 편히 지냈다.

그러나 이듬해인 기유년(1369)에 판서공께서 갑자기 서거(逝去)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른이 돌아가시니, 아무 준비도 없었음은 물론, 장례도 비밀리에 치러야 했으므로, 여간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천곡은 자기가 후에 쓰려고 지어 놓은 수의(壽衣)를 내어다가, 예의(禮儀)에 어긋남이 없이 빈 염(殯殮)을 갖추어, 슬퍼하기를 친상(親喪)처럼 하고, 자신의 신후지(身後之地)로 정해놓은 모부인(母夫人, 고려국 지음주사(知蔚州事) 울산군(鬱山君) 영천인(永川人) 이종영(李仲榮)의 장녀 고려 숙부인 영천이씨의 묘분(墓墳) 아래에 장사(葬事)를 모시게 하였다.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남쪽 나현 자좌(도유리 85)로 오늘날 전국 8대 명장지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옥녀직금체(玉女織錦體) 또는 야(也)자형의 길지이다.

이에 얽힌 두 분의 우정 이야기는 지금까지 회자(膾炙)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 공의 묘소를 세인(世人)들은 광릉

(廣陵)이라고 부르고, 승사를 광릉사(廣陵寺), 재사(齋舍)를 추원재(追遠齋), 위전은 광릉위전(廣陵位田), 마을을 광릉골(廣陵谷)이라 하였다. 이곳에 묘를 마련한 뒤, 둔촌선생의 후손들은 대대(代代)로 영귀(榮貴)하게 번성(繁盛)하니, 판서공은 조선조(朝鮮朝)에서 자손이 귀하게 되어(曾孫右議政 仁孫), 자헌대부 이조판서겸 지의금부사보 경연관 서연관 성균관제주(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補經筵官書筵官成均館祭酒)에 증직되었다.

못사람들이 말하기를 손(客)이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서, 영남(嶺南)에서 가장 이름난 묘(墓, 8대 명당지)가 되었다고 전해오는데, 광주이씨 둔촌의 후손들은 자신의 사후지지를 내어준 천곡의 이러한 고마움에, 산 아래에 보은당(報恩堂 지금 은 터만 남아 있음)이란 사(舍)를 지어 놓고, 선생의 은혜를 추모해 왔으며, 제사를 모시거나 관직에 오른 후손들이 성묘(省墓)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천곡의 모부인(母夫人) 영천이씨의 묘(墓)에까지 아울러 예(禮)를 올리고 있다.

또한 최씨와 이씨의 두 집안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비(제비)의 충절을 잊지 않기 위해, 제비의 무덤 앞에 술과 밥을 지어 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비의 무덤인 연아총(燕娥塚)을 관리하며 해마다 제사를 지내 주고 있다.

시조비 정부인(貞夫人) 인화씨(仁華李氏) 세일사 봉행



시조비 인화씨 세일사 봉행

2023년 11월 16일(음 10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24-1번지(하남대로 888) 소재 시조비 정부인 인화씨(仁華李氏) 묘소에서, 80여 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비가 내리겠다는 기상청 예

보에 맑게 개이기를 염원하며 묘역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후손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 소식과 안부를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그치지 않고 날씨마저도 추웠으나, 대종회에서는 일찍부터 참배를 위해 오시는 후손들이 추위를 녹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따뜻한 오뎅국을 준비하여 속을 데우도록 하였다.

날씨도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가 비가 계속 내리, 봉사하는 경기남부청장년회 회원들은 흠뻑 젖은 몸으로 천막을 세웠다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하였다. 참배 후손들은 땅이 젖어 짙을 울릴 수 없는 형편인지라, 천막 안에서 집례자의 활기에 따라 선 채로 반절을 올리는 형편이 되었다. 경기남부청장년회 회원들의 열정어린 봉사활

동으로 제례 준비가 끝나고, 후손들이 묘전에 정렬한 후, 참석하신 종인들의 간단한 소개와, 대종회 주영 회장의 인사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제례에는 초헌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아헌에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종헌에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금년도 제례 주관 지파인 참판공파종회와 좌통례공파종회에서 집례에 종우 관찰사공종회 총무, 독축에 강래 현종, 집사에는 식래, 진호, 종승, 용명 현종이 맡아 경건한 분위기 속에 봉행되었다.

이날 제례는 서둘러 10시 30분에 시작되어, 30여 분간 진행되었으며, 제례 봉행을 마친 후손들은 비가 내리는 관계로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귀가하였다.

성남지역 선대조(先代祖) 묘소 세일사 봉행

2023. 11. 17(금. 음 10월 5일) 10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번지(중원구 둔촌대로 320) 둔촌선생 묘역에서는, 선조의 세일사를 봉행하기 위해 전국 경향 각지에서 300여 명의 후손들이 찾아, 화창한 날씨 속에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은 둔촌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조님들의 세일사를 봉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오전 10시 30분에 내빈 소개와 대종회 주영 회장의 인사가 있는 뒤, 제관의 분정내역 발표 후 곧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초헌에 대종회 주영 회장, 아헌에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종헌에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제례의 집전은 참판공파종회와 좌통례공파종회에서 맡아 집례에는 백 현종, 독축에 형래 현종, 집

사에는 승, 진호, 종균, 종오 현종이 맡아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둔촌선생 세일사를 마친 후, 곧 이어 맞은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87-2(중원구 시민로 50) 소재 둔촌 선생의 아드님이신 청백리공(휘 지직) 묘역으로 이동한 참배객들은, 11시 30분 묘소 앞에 진열하여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청

백리공 세일사에는 초헌에 사인공파종회 용화 회장, 아헌에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종헌에 좌의 정공파종회 충고 회장이 헌직하였으며, 제례의 집전은 독축에 형래 현중, 집례에 종우 현중, 집사에 승, 진호, 종균, 종오 현중이 둔촌선생 제례 봉행에 이어서 수고해 주었다. 제례를 마친 후손들은 묘역 아래 대원공원에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도시락과 음복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잠깐 동안의 덕담을 나누고 인근 사인공(諱 長孫), 관찰사공(諱 禮孫), 광원군(諱 克墩) 선조의 세일사를 봉행하기 위해, 각자 묘역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 둔촌선생(諱 集)의 자는 성로(成老)이며, 초명은 원령(元齡)이고, 호는 묵암자(墨巖子)이다. 고려 충숙왕 14년 정묘(1327)에 광주목(廣州牧) 구천면 인근(둔촌동 일원)에서, 생원공(諱 唐)의 둘째 아들로 탄생하여, 21세가 되는 충목왕 3년 정해(1347)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29세가 되는 공민왕 4년 을미(1355)에 문과 병과(文科丙科)에 제3인(三等)으로 합격하여, 영주원(寧州院) 충남 천안의 원납(元納)에 올랐다. 공은 공민왕의 신임이 두터운 요승편조(妖僧遍照 신돈(辛旽))의 횡포가 점점 심하여지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신돈을 극구 비난하였다. 이에 신돈이 노발대발하여 포살령(이웃에 사는 재판서라는 자가 밀고함)을 내리므로, 둔촌동의 일자산 토굴로 피난하여 숨어 살았다. 그러나 신돈의 하수인이 둔굴에 숨어있다는 기미를 알아차리자, 장차 그 화(禍)가 미치게 되었으므로, 공민왕 무신(1368)에 병든 채 홀로 되신 노령(老齡)의 아버님을 등에 업고, 가족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이동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문경새재를 넘어 경상도 영천에 이르러, 동년(同年)으로 관직(司諫)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가 살고있는, 천곡 최원도(泉谷 崔元道) 집에 은거하였다.

공민왕 20년(1371)에 신돈이 대역죄로 주살되자, 송경(松京 개성) 용수산(龍首山) 아래 있는 현화리(玄化里) 옛집으로 돌아와 이름을 집(集)으로, 자는 호연(浩然), 호는 묵암자(墨巖子)를 둔촌(遁村)으로 고쳤다. 그로부터 공은 몇 곳의 외직(外職)을 지내다가, 내직으로 들어와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배수되었으나, 곧 사임하고 광주부 대원촌(大院村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과 금토동(金土洞), 둔촌동(廣州府 遁村洞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은거(隱居)하다가 곧 여주 천령현(驪州 川寧縣 여주 이포나루 근처)으로 옮겨 우거(寓居)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삼은(三隱)과 시문(詩文)을 주고받으며, 도의(道義)로써 교우(交友)하니,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공은 우유부단한 것을 싫어했고, 나라를 생각하기를 불같이 뜨겁게 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복받치어 한탄하였는데, 학문이 높고 고덕(高德)하며 절의(節義)가 대단했던 분으로 세인들은 목은(牧隱 李穡), 포은(圃隱 鄭夢周), 도은(陶隱 李崇仁)과 더불어



둔촌선생(휘 집) 세일사 봉행

어 공의 호(號)인 묵은(墨隱)을 합쳐 여말 4은(麗末 四隱)이라 불렀으며 후일에는 오촌(五村), 팔청(八淸), 구일(九逸)의 유사(有司)로 현재까지 추앙받게 되었다. 공은 일찍이 문경공 안보(文敬公安輔)의 학문(學問)을 따랐으며, 흑시 남의 인물을 평론하다가, 활달한 높은 선비를 발견하면 이마에 손을 얹고 탄복하였으며, 웅졸하고 진부한 자를 발견하면, 침을 뱉고 꾸짖기를 마지않았다. 또한 공의 문장은 이론 정연하고 맑고 깨끗하였으며, 특히 시를 좋아하였다.

공이 벼슬살이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향리에 내려와, 여주 천령강변(川寧江邊)에 봉서정(鳳棲亭)을 짓고 사실 때에는,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침류정(沈流亭)과 적약재 김구용(惕若齋 金九容)의 육우당(六友堂)이 가까이 있어서, 더불어 정을 나누었는데, 고려 우왕 13년 정묘(1387)에 서거하니, 향년 61세이며, 자손(子孫)들이 많이 벼슬에 나아가 재상(宰相)까지 오름으로, 조선조(朝鮮朝)에서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조선조 현종 8년(1667)에 사림(士林)에서, 공의 문학과 지절(文學志節)이 삼은(牧隱, 圃隱, 陶隱)과 같다고 하여, 광주 암사강상(廣州岩寺江上 현 강동구 암사동 산 1-1)에 서원(書院)을 짓고 제향(祭享)하였으며, 숙종 23년(1697)에 구암서원(龜岩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을 하사(下賜) 받았다. 시고 둔촌잡영(詩稿 遁村雜詠 보물 제1218호) 두 권(294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음)이 세상에 전하여 남아있으며, 묘소는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산 7-1 이다. 옛날에 표식이 있었으나, 오래되어 마모되니, 효종 4년 계사(癸巳 1653)에 갈석(碣石)을 개수(改整)하고, 10대손 정랑 휴징(正郎 休徵)이 비문을 짓고, 11대손 정자상진(正字 象震)이 글을 썼다. 공의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1998년 10월 13일에는 재사(齋舍)인 추모재(追慕齋)가 준공(竣工)되었고, 재사 내에는 공의 영정(影幀)이 봉안(奉安)되어 세사부조(世祀不祧)로 모시고 있다. 배위(配位) 정화택주(貞和宅主) 영주황씨(鄧州黃氏)는 휘 석범(諱 碩範)의 따님으로, 조선조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되었으며, 슬하(膝下)에 3남 1녀를 두었다.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을 보시자 곧게 살라는 뜻으로 직(直)이라 하였고, 둘째 아들을 보시자 곧고 강(剛)이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을 보시자 곧고 굳센만이 다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부드러움도 결(結)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유(柔)를 주었다고 하였다.



청백리공(휘 지직) 세일사 봉행을 마치고

○ 청백리공(諱 之直)의 자는 백평(伯平)이고, 호는 탄천(炭川)이며, 휘(諱)는 지직(之直)인데, 초명은 도(途)였다. 고려 공민왕 갑오(1354)에 둔촌선생(遁村先生)의 장자로 탄생하여, 포은선생(圃隱先生) 문하(門下)에서 동생(弟)인 지강(之剛)·지유(之柔)와 함께 사사(師事)하였다. 학문이 고명(高明)하고, 처사(處事)가 강정(剛正)하였으며, 황명홍무(皇明洪武) 13년 경신(1380, 고려 우왕 6)에, 전구서승(典殿署丞)으로 문과(文科)에 아원급제(亞元及第)하여 한림(翰林)에 들었고, 1392년 우왕 1년 정몽주가 살해된 후, 그 일당으로 몰려 잠시 삭탈관직 되었다가, 경승부 소윤에 임명되었으며, 평창·청주·충주목사를 지냈다. 조선이 개국되어 태조 원년 관동·호서지방(關東, 湖西地方)의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 按廉使)를 거쳐 태조 6년 형조참의 보문각 직제학(刑曹右參 寶文閣直提學)을 배명 받았으며, 소도(昭悼)의 변란(變亂 1398)이 일어나자, 고마극간(叩馬極諫) 말머리를 붙들고 끝까지 간한다는 말(節義)을 드러내다가 겨우 극형(極刑)을 면(免)하고, 금고(禁錮)의 처벌만 받고 물러나게 하였다. 그 후 광주 탄천(廣州 炭川)의 촌사(村舍)에서 살았는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탄천선생(炭川先生)이라 일컬었다. 태종 1년 1월 강원도(江原道)의 안렴사(按廉使)를 거쳐 태종 2년(1400) 4월 내서사인(內書舍人)으로 있을 때, “왕은 행실을 바로 해야 한다”는 직언(直言)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가, 태종 4년 5월 사헌부 집의(司憲府 執義)를 배명(拜命) 받았으나, 사간원의 상소에 의해 다시 파직되고, 태종 9년 3월 성주목사(星州牧使)에 배수되었으나 병환으로 사임을 청하고 탄천으로 물러났다. 태종(太宗)이 만년(晩年)에 동궁(東宮 후일 세종대왕)에게 당부하여 다시 등용하라고 하므로, 세종(世宗)이 즉위하면서 형조우참의(刑曹右參議)로 불렀으나, 부임을 못 하고, 세종 기해(己亥 1419) 7월 20일 서거(逝去)하니 향년 66세이다. 태종조에 청백리(清白吏)의 선록(選錄)을 받고, 단종 3년 을해(1455) 2월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고신(告身)을 돌려주게 하였으며, 자귀(子貴, 忠僖公)로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補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겸 영경연춘추관홍문관예문관서운관사(領議政兼領經筵春秋館弘文館藝文館書雲館事)에 증직(贈職)되었다. 배위(配位)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지인주부사(知仁州府事) 원보(諱 元普)의 따님으로, 정경부인(贈貞敬夫人)에 오르 고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다.

대중회 세일사(歲一祀) 전(前) 제례 교육 실시



2023. 11. 3일 10시 30분부터 2023년도 세일사 봉행을 앞두고 제례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년도 세일사 집례 지파인 참판공파종회와 좌통례공파종회에서 집례를 담당할 종인 및 기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당초 10시부터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장 준비가 늦어져, 약 30여 분이 지나서야 교육이 진행되었다. 먼저 대중회 주영 회장의 당부

말씀이 있는 뒤, 제례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곧바로 실행 연습에 들어갔다. 집례 교육자들은 실제 봉행을 하듯이,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연습하고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연습을 하였다. 집례 교육을 받은 종인들의 열의는 금년도 세일사 봉행에 한 치의 실수 없이 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8회 둔촌문화제 개최



둔촌(遁村) 이집(李集) 선생의 충절심과, 곧은 선비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8회 둔촌문화제」가 2023. 11. 18(토) 개최되었다. 둔촌 선생의 올곧은 선비정신을 기리는 둔촌문화제는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광주이씨 대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그동안 성남문화원 유튜브 및 성남 지역 신문 「뉴스공간」 등 지역 매체가, 연초부터 “성남의 큰 어른 둔촌 이집 선생 추모 제8회 둔촌 문화제” 제호로 널리 홍보하여 왔다.

성남문화원 김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참배식과, 2부 문화제 행사로 나누어 개최되었는데, 참배식은 둔촌선생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20(하대원동 243-11) 추모재에서, 아침 10시 30분부터 추도 참배식이 있었다. 참배식은 성남시 청소년 국악단 「가현」 취타대 연주에 이어, 김진욱의 대금소리가 장내를 감싸는 가운데 서예가 유명한 선생이 둔촌선생 정훈 휘호를 쓰고, 윤종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둔촌선생에 대한 간단한 행록 소개가 있었다. 이어 아쟁에 박제현, 장단에 강민석의” 아쟁산조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어진 헌화 및 참배는 김대진 성남문화원장과 광주이씨 대중회 주영 회장 외 운영찬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등 외빈과, 광주이씨 대중회 산하 지파 종회장 등 많은 종인들이 참여하였다.

1부 참배 행사를 끝내고 광주이씨 종인들과 외빈들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2부 행사의 참관을 위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남시청 1층 온누

리 강당으로 바뀐 발걸음을 옮겼다. 2부 행사는 성남시 소개 동영상 상영, 타악 연희단 소리울의 「둔촌선생 행차요」, 「둔촌선생 추모 현양사업 영상 상영」, 타악 퍼포먼스 「태동」, 정미래 춤자이예술단 대표의 「승무」, 방영기 명창의 창과 무용가 정미래, 대금의 봉용섭의 공연속에 서예가 유명한 함미영선생의 「둔촌정훈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이어 성남 시립합창단 중창단의 둔촌 추모 「큰 기침 소리」, 성남시립합창단 석종국 안효영 단원의 「탄천의 눈물」, 특별공연으로 여성 전자현악 3중주단으로 구성된 밀키웨이의 「어이야, 고향의 봄」 등 공연, 연극배우 이주희 등의 「둔촌선생 작시」 「2023년 둔촌백일장 입상작」 낭송, 대통령상 수상자인 명창 문효심의 판소리 「숙대머리」, 신세대 국악인 방글과 이주영의 「홀로 아리랑」 등, 성남 국악협회와 고만고만 예술단의 「청춘가」 「신고산타령」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광주이씨의 중흥을 연 충희공(諱 仁孫)의 세일사가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에서 봉행되고,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약 200여 명의 관중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은 「둔촌 선생은 부모에 대한 효행과, 강직한 인품으로 동료들과 선후배 선비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고려말 부패한 신돈 정권에 날선 비판을 했던, 곧은 지조를 지닌 선비였다」면서, 「둔촌선생의 효행과 곧은 지조와 인품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며, 널리 자랑할 큰 어른으로 오늘 제8회 둔촌문화제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역사를 빛낸 성남의 큰 어른 둔촌선생의 고귀한 인품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둔촌 문화제를 올해까지는 시(詩)·무(舞)·악(樂)의 문화제로 개최하고, 내년 부터는 시민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인사하였다. 대중회 주영 회장은 「이곳 성남시는 둔촌 선생과 아드님이신 청백리공 탄촌 선생 등 직·후손 선조

들의 유혼이 곳곳에 깃들어 있는 곳으로, 선생의 숭고하신 뜻과 가르침을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지역의 큰 어른으로 추앙받고 있는 둔촌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성남문화원과 함께 둔촌 이집묘역의 경기도 기념물 지정에 힘쓰고,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백일장 개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둔촌문화제를 통해 선생의 효행과 선비정신을 후대에 널리 알리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둔촌문화제가 성남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둔촌선생이 보여 준 효와 우애, 지조있는 삶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둔촌 이집 선생의 청렴하고 올곧은 선비 정신을 이어 받자」고 하였다. 그리고 멀리 중국 심양 둔촌백일장을 주관하고 있는 심양시 교육문화원 박영철 주임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신상진 성남시장,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등 도의원, 시의원, 광주이씨 대중회의 주영 회장을 비롯한 종인 등 약 200여 명이 참관하였다. 이날 둔촌문화제를 빛내기 위해 특별히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 홍연화 명장과 경력지승보존연구회의 「지승공예특별초대전」이 개최되었다.

한편 지난 2023년 11월 10일 중국 랴오닝성 심양시에서는 교육문화원 주관으로 「중국심양둔촌백일장」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8회 둔촌문화제 격려사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



안녕하십니까?
廣州이씨 대종회 회장 李柱榮입니다.
바람에 살랑이며 흔들리는 가을 역새가,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으로, 바뀌어 가는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둔촌문화제”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 승격 50년 역사의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를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시는 성남시 의회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도약의 시대에 희망찬 성남을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님. 그리고 지역 내 많은 지도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성남시는 옛 廣州郡에 속했던 지역이며, 충절과 청백리의 역사 문화를 간직한 고장으로, 50년 전 성남시로 승격된 후, 눈부신 발전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李氏는 廣州를 본향으로 하는 성씨 문중으로, 옛부터 광주군 일원에는 훌륭한 선조님들과 후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이며, 특히 이곳 성남시에는 둔촌 이집선생과 선생의 큰 아드님 되시는 청백리공 탄천 이지직 선생 등 많은 후손들의 유혼이 곳곳에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우리 문중의 중흥조이신 둔촌 이집선생의 숭고하신 뜻과 가르침을 선양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뜻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동안 성남시와 문화원에서는 둔촌 선생을 성남의 큰 인물로 모시고, 해마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 심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그곳에서도 둔촌백일장 행사를 18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중에서는 이러한 지역 지도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 행사들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복한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가을을 보내면서, 오늘 이 행사가 성남시민 여러분과, 우리 종인들이 함께 하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8일
廣州이씨 대종회 회장 李柱榮

지파종회 소식

사인공파종회

■ 사인공(諱 長孫) 세일사 봉행



사인공 휘 장손 세일사 봉행

사인공파종회(회장 용화)는 11월 17일(금) 13시 30분 사인공(諱 長孫) 선조와 아드님 대사간공(諱 克圭) 세일사를 봉행하기 위하여, 대구와 창녕 지역 후손들을 태운 임대버스가 새벽 일찍 출발하여 성남 선영에 도착하였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여 먼저 경향 각지에서 도착한 종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어 오전에는 둔촌 선조와 청백리공 세일사를 봉행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마련된 대원공원에서 도시락으로 종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점심 식사를 하였다. 1시

가 되어 사인공 선조의 묘소로 이동하여 세일사 봉행을 준비하였다.

사인공 선조(諱 長孫) 세일사를 봉행하기 앞서 내빈 소개가 있었고, 이어 분정 내역은 초헌에 본손 용화 회장, 아헌에 대종회 용두 부회장, 종헌에 경운재공종회 석재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축에는 본손 용찬 재무이사, 집사에는 용술, 학재, 준명(해재), 종호 현종이 집례에는 회재 총무이사가 분정되어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이어진 사인공 선조의 묘하에 모셔져 있는 외 아드님 대사간공(諱 克圭) 선조 세일사에는 초헌에 용찬 재무이사, 아헌에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종헌에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축은 본손 용화 회장, 집사와 집례는 기 분정된 현종들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금년 세일사에는 대종회 용두 부회장,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종두 총무이사 등이 참배에 함께해 주었다.

제례를 마친 일행은 대사간공 묘전에서 음복을 하며, 선조님의 음덕을 기리고 백대지친의 정을 나누는 뒤 버스에 올라 대구로 향하면서 한 번 더 백대지친의 정(情)과 조상님의 얼을 되새기니 어느덧 차는 대구에 도착하여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또한 사인공파종회(회장 용화)는 지난 11월 22일(화) 창녕에 영면한 선조 세일사를 봉행

하였다. 먼저 현령공(諱 成壽)과 교위공(諱 姬爽)의 세일사에는 용화회장이 초헌을 그리고 현감공(諱 友慶)과 열사공(諱 汝극)의 초헌은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용달 현종이, 창녕 입향조인 원정공(諱 廷俊)과 운암공(諱 時老), 노농헌공(諱 斗南)의 세일사에는 경운재공종회 석재 회장이 분정되어 엄숙하게 봉행하였으며, 음복 후 본건물 1층 옥천 식당으로 이동하여 오찬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백대지친의 정을 나누고 사인공파종회 회장(용화)의 광이인(廣李人)으로서 자긍심(自矜心)을 갖자는 외침으로 끝을 맺었다.

- 사인공파종회 총무 회재 記

바로 잡습니다. <제393호>

● 11페이지 둘째단 하단(20~21째줄)

이병철(李秉徹)1899~

국내항일 · 건축훈장 애국장

→ 광원군파 도정공종회

총무 택재 記로 정정

총희공종회

■ 총희공(諱 仁孫) 서세 560주기 세일사 봉행

총희공종회(회장 경래)에서는 2023년 11월 18일(토). 총희공(諱 仁孫) 선조 560주기 세일사를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소재 묘역에서 봉행하였다. 쌀쌀한 영하의 날씨지만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이었다. 이날 경래 회장을 비롯하여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 봉수 회장, 문경

공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 성호 회장, 광원군파 용철 회장, 좌의정공파 충교 회장 외 10개 지파 종직자 등 120여 명의 후손들은 제례에 참석하여 엄숙하고 경건하게 제례를 봉행하였다. 산신제를 모시고 묘역에서 내려와 재실 마당에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애기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나 음복주한 잔 기울이며 뜻다 한 얘기들을 주고 받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특히 이날 둔촌 문화제 행사와 날짜가 불가피하게 겹쳐져 더 많은 참사 후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일사를 마친 후 일부 참사 후손들은 둔촌문화제 행사 참관을 위해 성남시청 온누리 대강당(1층)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이날 제례 봉행에는 초헌에 총

희공종회 경래 회장, 아헌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종헌에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집례에는 광천부원군파종회 종성 부회장, 독축에 광릉부원군파종회 만재 부회장, 좌집사에 무환, 종덕 우집사에 영래, 종안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총희공(휘 인손) 선조 세일사 봉행

■ 총희공종회 확대임원회의



총희공종회 임원회의

2023년 11월 9일(목) 11시, 총희공 종회(회장 경래)에서는 오희백과가 풍성한 풍요로운 계절에 5군 종회장과 임원이 함께하는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찍 재실에 도착한 임원들은 성묘하고 재실 승모재에 입장하였다. 다소 불편한 자리지만 햇살이 다사롭게 내려쬐는 마루에 앉아 종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고견을 듣는 시간이 되었다. 회의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다음 정식회의에서 토의할 의제를 남기고 종료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여주시 강변 왕터 매운탕 집으로 옮긴 임원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정다운 애기꽃을 피우고 덕담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희공종회에서 묘역 근처 토지에서 수확한 햅쌀을 소포장하여 각 종회별로 배부하여 주었다. 할아버님이 주신 선물이니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햅쌀의 진미를 느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화의 애애한 회의를 통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총희공종회가 되기를 바란다.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 총희공종회 총무 승재記

관찰사공종회

■ 관찰사공(諱 禮孫) 세일사 봉행

2023년 11월 17일. 오전에 둔촌선생과 청백리공 세일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끝낸 후손들은,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74-8에 소재한 관찰사공(諱 禮孫) 선조의 묘역으로 이동하여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은 성남 소재 선대묘역에서 많은 선조님들의 세일사를 모시는 관계로, 오전의 많은 참배객들은 각자 흩어져 선대조 묘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배할 수 없었음에도, 대종회 주영회장, 총희공종회 경래 회장, 대종회 주홍 재무이사를 비롯한 많은 본·방손들이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세일사 분정에는 초헌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아헌에 대종회 주영 회장, 종헌에 총희공종회 경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독축에 통제사공종회 형래 회장, 집례에 백 현종, 집사에 홍재, 종오, 종승, 종균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관찰사공 세일사 봉행을 마친 참배객들은, 바로 옆에 영면해 계시는 참판공(諱 英賢) 묘전에서 세일사 봉행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관찰사공(諱 禮孫) 선조의 생몰년에 대하여는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자는 계운(季胤)이니 세종 갑인(1434)년에 생원(生員)시에 합격하고, 문과(文科)에 올라 대사성(大司成)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서 모두 명예스러운 치적을 올렸으며 사후에 예조참판(禮曹參判)의

증직(贈職)을 받았다. 묘소는 광주 세촌면 대원리(廣州 細村面 大院里 : 성남시 하대원동) 둔촌선생(遁村先生) 묘소(墓所)의 서강자좌(西岡子坐)에 모셨다.

배(配)에 정부인(貞夫人)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니 부(父)는 현감 서(縣監 曙)이며, 묘(墓)는 병자(1984)에 세운 묘비에 부군의 묘에 부(附)라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공의 기일(忌日)은 3월 7일이고, 부인(夫人)의 기일(忌日)은 정월 9일이라고, 분명하게 참판 윤우(參判 諱 潤雨)의 수필중(手筆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후손 영석(榮錫)이 가지고 와서 자세히 말하므로 기록하였다. 왕조실록(王朝實錄)에 고증(考證)해 보면, 공은 세종 18년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이 되었고, 좌정언(左正言)과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좌사간(左司諫) 대사성(大司成)을 지냈으며, 세조 3년에 첨지중추원사, 황해도 관찰사, 형조참의를 지냈고, 기묘(1459)년에 관압사(管押使)로서 명조(明朝)에 내왕하다가, 3월 11일 돌아오는 길에 황해도 봉산(黃海道 鳳山)에서 서거하니, 조정에서 부의(賻儀)로 미두(米豆)를, 각각 20석(二十石)과 종이 백권(百卷), 송지(松脂) 석회(石灰) 등 물건을 하사(下賜)하였다. “공은 성품이 강개(慷慨)하고 방직하여 용납하는데 구차함이 없어 당시에 청렴한 선비라 칭찬하더니 돌아가시매 사람마다 슬퍼했다” 고 전한다. 갑자(1984)년에 그전의 묘표(墓表)에 음기(陰記)가 없었으므로, 종회 주관으로 다시 묘비(墓碑)를 세우고 19대손 채진(採鎭)이 찬(撰)하고 적었다.

참판공(諱 英賢)의 자는 희성(希聖)이고 휘는 영현(諱 英賢)으로, 황해도 관찰사 예손(諱 禮孫)의 증손이다. 할아버지는 통례원 통례 극건(諱 克堅)이고, 아버지는 증 참판 람(諱 擘)이며, 어머니는 목사 승원(諱 承元)의 따님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생활이 곤궁했으나,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1525년(중종 20)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7년(중종 32)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곧 홍문관 정자에 선임되고 이듬해 다시 탁영시(擢英試)에 병과로 급제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아 박사·수찬·정언·지평 등을 지냈다. 1544년 시독관(侍讀官)·교리를 거쳐, 사복시정에 승진하여 이듬해 『중종실록』 편수관을 겸임하였고 응교·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응교로 있을 때 명종의 즉위와 함께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받아 지방관과 한직으로 밀려나 9년을 지냈다. 다시 등용되어 교리·직제학·승지·종부시정·이조참의·형조참의·한성부 우윤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1562년(명종 17) 청홍도 관찰사(淸洪道觀察使)가 되었다. 1567년 첨지중추부사로서 정조사(正朝使)



관찰사공(휘 예손) 선조 세일사 봉행

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1568년(선조 1) 동지춘추관사로 『명종실록』 편찬을 지휘하였다. 그 뒤 파직되었다가 1570년 서용되어, 한성부 좌윤을 역임한 뒤 예조·형조·공조참판, 개성 유수

등을 두루 지냈다. 경연에 나아가 시강할 때에는 풍부한 학식과 맑은 음성으로 왕의 칭송과 상을 받았으며, 옥사를 다스릴 때에는 판결이 분명하고 변동이 없어 법정이 숙연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관으로 나가서는 민폐를 덜고 생활을 안정시켜 백성들이 칭송했다 한다. 태종의 외예(外裔)라 하여 종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 관찰사공종회 총무 증우記

광릉부원군파종회

■ 광릉부원군(諱 克培) 서세 528주기 세일사 봉행

광릉부원군파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3년 11월 24일 광릉부원군 528주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해서 총회공 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 이 밖에도 10개 지파 종회 회장 등 본·방손이 묘전을 가득 메운가

운데, 문수 총무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와 봉수 회장 인사, 대종회 주영 회장 인사, 그리고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 회장으로부터 광릉부원군 파조님의 세일사에 즈음한 격려사가 있었다. 그리고 광릉부원군 선조님 행적 소개는 평소 문수 총무이사가 많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공개서 어전(御殿) 조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토막 소개하였다. 이 후 세일사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송조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봉행하였다. 제례 진행은 집례에 종봉 화수회 총무, 축에는 만재 부회장, 집사에는 병무, 철래, 종길, 종철 현종이 맡아 수고하였으며, 분정은 초헌에 봉수 회장, 아헌에는 사인

공파 종회 용화 회장, 종헌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이 헌작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모든 종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적은 생략한다>



광릉부원군(휘 극배) 선조 세일사 봉행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記

■ 광릉부원군 후손 합동 제례 봉행

광릉부원군 파조님 세일사를 모시고 난 이후 참배 직·방손들은 곧 바로 파조님 후손들의 제례를 봉행하였다. 문수 총무로부터 제례를 모시는 후손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제례에는 안악군수 도승지공 휘 세충, 공조좌랑 휘 수겸, 유곡 찰방 휘 이건, 장례원 판결사 회

성군 휘 시무, 병조참판 광림군 휘 정립, 여산군수 광천군 휘 현담, 군기시정 휘 원담, 장례원 사의 휘 진담 순으로 세일사를 합동으로 봉행하였다. 제례 진행과 축 그리고 집사는 동일인이 봉사하였고, 분정은 초헌에 봉수 회장, 아헌에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 종헌에는 좌의정공파 종회 충교 회장이 헌작하였다. 끝으로 향축대를 봉헌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광릉부원군 후손 합동 제례 봉행

광천부원군파종회

■ 광천부원군(諱 克增) 서세 529주기 세일사 봉행



광천부원군(휘 극증) 서세 529주기 세일사 봉행

2023년 11월 19일 광주이씨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에서는 광천부원군(諱 克增) 서세 529주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은 쌀쌀한 날

씨였지만 성호 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총회공 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좌의정공파종회 충교 회장,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승덕재공종회 상훈 회장, 동고상공종회 근배 회장, 좌통례공파 통제사공종회 형래 회장 그리고 10개지파 종직자들과 경향 각지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였다. 제례 봉행에 앞서 종두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와 참석자 소개 그리고 광천부원군파 산하 각 지역종회장 소개도 겸하였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정계 청년회에서 10여 명의 회원과 30~40대 젊은 종인 5~6명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고 소중한 제례 봉행이 되었다.

이 헌작하였으며, 집례에 종문 현종, 독축에 용복 현종, 좌집사에 윤수, 석광 현종, 우집사에 정수, 광재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또한 목사공 이하 2분의 세일사 봉행에는 초헌에 임실지역종회 평래 종회장, 아헌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종헌에 좌의정공파 종회 충교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봉산군수공 이하 3분의 세일사 봉행에는 초헌에 서천지역종회 종준 종회장, 아헌에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종헌에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이 헌작하였다.

이날 세일사 봉행의 분정은 초헌에 직손인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아헌에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 종헌에 좌의정공파종회 충교 회장

이번 세일사를 봉행하면서 옛 문화가 사라져 가는 세대에 우리 문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켜서 후손에게 아름다운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끝으로 본 종회 세일사에 향축대를 봉헌해 주신 대종회를 비롯한 지파 종회장님들과 제주를 봉헌해 주신 수원지역종회, 문정지역종회,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하반기 제례교육 실시

광천부원군파 종회(회장 성호)에서는 다가오는 광천부원군 파조님의 세일사를 맞아 원활한 진행과 제례를 위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재실(영모재)에서 실시하였는데 아침 일찍부터 각 지역 종회에서 추천된 교육자들은 서둘러 교육장인 재실로 향했고, 집행부

는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새로운 교육자를 발굴하여 실천에 투입하여 습득하는 교육을 하여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종회에서 지원하며, 각 지역 종회에서 낙향조님들의 세일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함에 목적이 있다. 종성 부회장의 진행으로 활기 잃는 연습, 축문 읽어보기, 뜻 풀이 등을 교육하였고 집례와 집사들이 활기에 맞추어 흐트러짐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과 같이 연습해 보고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꼼꼼이 체

크하면서 수강하였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종두 총무이사記



광천부원군파종회 하반기 제례교육

■ 광천부원군파 문정 지역종회 청년회 캠프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 종회 청년회(회장 주훈)에서는 2023년도 청년회를 대상으로하는 문정지역 종회 청년회 캠프를 10월 28일 ~ 29일 (1박 2일) 별풍별 글램핑장(유명산 소재)으로 다녀왔다.

45세 이하 회원으로 구성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에는 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

에 개최되었다. 회원간의 단합을 위하고 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캠프에서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오순도순살아가는 얘기도 하며 문정지역 종회 청년회 발전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는 자리이면서 종친 간에 만날 기회가 적어, 서로 간의 대화와 친목을 도모할 자리가 마련되므로 혈친간에 정을 돈독히 하는 행사가 되어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게 되었다.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 종회(종회장 종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 종회 소속감과 중

회의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 종회 윤수 총무이사記



문정 지역종회 청년회 캠프

광원군파종회

■ 광원군(諱 克墩) 서세 520주기 세일사 봉행



광원군(휘 극돈) 서세 520주기 세일사 봉행을 마치고

광원군(廣原君, 諱 克墩) 세일사가 2023년 11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87-2 묘소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오전에는 둔촌선생, 청백리공 세일사를 봉행하고, 대원공원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약 40여 명의 본·방손이 묘전으로 자리를 옮겨 엄숙히 봉행하였다.

오후가 되면서 화창하던 날이 점점 흐려지더니 눈발도 날리면서 여러 색을 보여준 날씨속에 본손은 물론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종성 부회장, 광릉부원군종회 종길 화수 회장, 송덕재공종회 상훈회장, 동고종회 근배 회장 등 50여 명이 참배에 참여하였다.

이날 세일사 봉행을 하기 전에 광원군파종회 산하 부사공종회 은재 회장, 감사공종회 점식 회장, 도정공종회 종찬 회장을 비롯하여, 광원군의 첫째 아드님인신 부사공(諱 世銓) 종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 뒤, 모든 참사자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감사공종회 산하 보성의 양진재공종회(회장 용호)에서는 광주 거주 종인들과 함께 버스를 임대 상경하여 둔촌선생과 청백리공 세일사를 봉행한 후 광원군 파조 세일사 봉행에도 참여하니 더욱 뜻깊은 세일사 일정이 되었다. 광원군 세일사를 마친 후손들은, 묘역 옆에 영면해 계시는 감사공(諱 世貞) 세일사를 봉행하

기 위해 묘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광원군의 휘는 극돈(克墩)이고 자는 사고(士高)이며 호는 사봉(四峰)이다. 세종 17년(1435) 충희공(忠僖公)과 모친 교하노씨(交河盧氏) 사이에 오남삼녀 중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세조 3년(1457) 시년문과(試年文科)에 급제하여 전농시(典農寺) 주부(主簿)로 보임 된 후 문학(文學)에 선임되었다. 통례문 판관, 성균관 직강을 거쳐 세조 13년(1467) 사헌부 집의로 있을 때, 세조를 온양(溫陽)에 호종하면서 충신(寵臣)이었던 홍윤성(洪允成)을 탄핵하고, 세조 14년(1468) 중시(重試)에서 아원으로 합격하고, 일본국에 통신사로 다녀와서 예조참의에 배명되었다. 세조의 명을 받아 둘째 형님(文景公 諱 克墩)과 셋째 형님(廣川府院君 諱 克增)과 같이 능엄경을 역주하였다. 또한 세조실록 찬술에 참여하였고, 치세(治世)에는 능신(能臣)이요, 난세(亂世)에는 간웅(姦雄)이란 책시(策試)에서 장원하고, 또한 예종 즉위년(1469) 고시관(考試官)으로, 식년문과에 참여하였다.

계감(繼鑑)인 무정보감(武定寶鑑)을 찬술하였으며, 사헌부 대사헌이 되어서는 세조가 계유정난(癸酉政亂) 후, 합권(合權)시켰던 이조와 병조를 분리시켰다.

또한 시무십이조(時務十二條)를 상소하여 사서인(士庶人) 교육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성종의 생부를 의경왕(懿敬王, 의경세자)으로 모시는 예의사(禮義使)로도 참여하였고, 이어서 형조참판에 배수되고, 성종 2년(1471)에 좌리공신(左理功臣)으로 광원군(廣原君)에 봉군되었다. 강원도 관찰사, 호조참판을 지내고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예조참판에 배명되었다. 성종 8년 주문사(奏聞使)로 왕비한씨(王妃韓氏)가 죽고 후사가 없어, 윤씨를 계비(繼妃)로 삼게 할 것을 주청하고, 돌아와서 예조참판으로 선잠제(先蠶祭)의 악장을 만들고, 배위 안동권씨와 함께 친잠행사(親蠶行事)를 주관하였다. 45세에 가선대부 병조판서를 거쳐, 영안도관찰사를 지내니 많은 업적이 있었다. 사헌부 대사헌에 다시 오른 후, 강목신증(綱目新增)을 찬술하였고, 또 다시 정조사로 표(表, 箋)를 받들고 경사(京師)에 다녀왔다.

평안·전라 진휼사(賑恤使)로 다녀왔으며, 다시 명사(明使) 선위사로 자헌대부 한성판윤을 겸

하였다.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후, 다시 병조판서로 북벌계획(北伐計劃)에 큰형님이신 광릉부원군(諱 克培)을 위시하여, 윤필상, 허종, 이계동 등 제현과 함께 참여하였으나, 사전에 이 일이 널리 유포되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호조판서를 지내고, 승정대부(崇政大夫)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많은 서책(書冊)을 발간하였다.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대명률(大明律)과 을조소의(律條疏議), 대관의두(對款議頭), 사죄속법(私罪贖法)을 논하고, 성종의 죽음으로 빈전도감제조(嬪殿都監提調) 산릉간심사(山陵看審査)를 겸하였다. 의정부 우찬성으로 있을 때는 명사(明使) 관반(館伴)을 겸하고,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승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를 겸하고 영경연사(領經筵司)로써 대전(大典)의 홀수조(恤囚條)를 논하고, 경연에서 '한광무기(漢光武紀) 상제기의 박사십사(博士十四家)를 세우다'를 강하며 왕에게 많은 간언을 하였다. 또한 수 차례 상소를 올려 왕이 바른 정사를 할 것을 극간하였다. 사치금지(奢侈禁止) 이십삼조(二十三條) 차자문(筓子文)을 올리고, 호적식년(戶籍式年) 개정(改定)에 참여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한치형, 유자광이 일으킨 무오사화에 실록청(實錄廳) 도청(都廳)으로써 즉시 아뢰지 않은 죄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동년 십이월 충훈부(忠勳府) 광원군(廣原君)으로 복권되었다가, 상정청(詳定廳) 감사 겸 병조판서 관상감사로 재직 중, 또다시 중국사신의 관반(館伴)을 삼으니, 연산 9년 2월(1503)이다. 공은 수 차에 걸쳐 사직의 상소를 올리니, 관반(館伴)의 직책(職責) 만든 공이 아니면 안된다 하여, 관반(館伴)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2월 28일 서거하니 향년 69세이다. 나라에서는 월헌(月軒) 정수강(丁壽岡)으로 하여금 제문을 짓게 하고, 파평부원군 윤필상과 의정부 좌참찬 윤희손 등으로 하여금 치제하게 하였다.

시호는 익평(翼平, 思慮深遠)을 익(翼)이라 하고, 집사유제(執事有制)를 평(平)이라 한다이고 명종 14년(1559)에 세사 부조지전의 명을 받았으며, 묘소는 성남 하대원에 있다. 배위는 정경부인 안동권씨로 예조참판 지(至)의 따님으로 향수(享壽) 92세이다.

■ 광원군 장사

부사공(諱 世銓) 세일사 봉행

23년 11월 29일(수) 광원군파종회 산하 부사공 종회에서는 광원군(諱 克墾)의 큰 아드님이신 부사공(諱 世銓) 세일사를 날이 추운관계로 시복공종회 사무실(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림 빌딩)에서 봉행하였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사공종회 은재 회장을 비롯하여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부사공종회 용각 총무, 광원군파종회 종운 부회장, 광원군파종회 총무이사 응재와 재무이사 용춘, 감사공종회 점식 회장, 도정공종회 종찬 회장, 도정공종회 택재 총무, 시복공종회 관재 회장, 시복공종회 총무 종각과 재무 종승, 그 외 광재, 결재, 종국, 종민, 주석, 인재, 철재 등 20여 명이 참례하였다.

제례의 봉행에는 집례에 택재 현중, 독축에 결재 현중, 우집사에 인재, 철재 현중, 좌집사에 용

각, 응재 현중이 수고해 주었으며 은재 부사공 종회장은 공의 행록을 설명하였다.

제례를 봉행한 참례자들은 봉달이 설령탕에서 음복과 식사를 하며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 등 종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사공의 자는 공형(公衡) 휘는 세전(世銓) 형조참의 지직(諱 之直)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의정 인손(諱 仁孫)이다. 아버지는 좌찬성(左贊成) 극돈(諱 克墾)이며, 어머니는 예조참판 권지(權至)의 딸이다. 성종(成宗) 11년(148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진사에 3등으로 합격 문음으로 출사하여 1483년(성종 14)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문과(文科) 을과(乙科)에 2위로 급제하여 이듬 해에는 감찰에 제수되었다. 1488년 형조좌랑에 제수되고, 1489년(성종 20) 지평에 오른 뒤 사헌부 장령으로 승진하였으며, 1491년 검찰관(檢察官)으로 강원도에 파견되어 북정(北征) 군사의 구호문제를 규찰하였다. 1492년 조선대부(朝散大夫)에 오르면서 수장령(守掌令)에 오르고, 다시 조봉대부에 승진하였다. 1496년(연산군 2) 응

교(應敎)에 제수되고 시강관(侍講官)으로서 절에 소금을 공급하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뒤 홍문관 응교 등 여러 관직을 거쳐 통정대부에 오르면서 밀양 도호부사를 역임하였다 이때 정사에 임하기를 엄하고 밝게하여 사람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부인은 현감 이질(李質)의 딸이고, 아들에 수번(秀蕃), 수간(秀幹), 수위(秀威), 수근(秀根), 수지(秀枝)를 두었다. 묘는 경기도 과천시 삼현(三峴,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에 있다.

- 광원군파종회 총무 응재 記



광원군파 부사공(휘 세전) 세일사 봉행

참판공파종회

■ 참판공(諱 克基) 서세 534주기 세일사 봉행



참판공(휘 극기) 세일사 봉행

참판공파 종회(회장 선래)는 2023년 11월 20일(월요일) 오전 11시, 참판공(諱 克基) 선조 묘전(성

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3번지)에서 참판공 선조 및 음애공(諱 闇), 현령공(諱 熙業), 사과공(諱 熙敬)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세일사에는 파종회 선래 회장을 비롯하여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총회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사인공파종회 용화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등 다수의 각 지파 부회장님과 총무, 재무이사들이 참석하였고, 전남 영광의 집성촌에 거주하는 후손들은 버스를 대절하여 세일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70여 명의 본·방손이 참석한 가운데 용총무의 내외빈 소개와 참판공 선조의 행장 발표에 이어, 선래 회장은 참석한 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용두 대종회 상임 부회장의 인사말과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의 덕담이 있었다. 파조인 참판공 선조의 세일사는 예전과 같이 봉

행하였으며, 음애공(諱 闇), 현령공(諱 熙業), 사과공(諱 熙敬) 선조의 세일사는 합제로 봉행하였다. 참판공 세일사 분정에는 초헌에 선래 참판공 파종회 회장, 아헌에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종헌에 좌통례공파 택수 회장이 헌작해 주었으며, 축에는 강래 현중, 집례에 참판공파 청장년회 백회장, 집사에는 식래·승·용환·진호 현중이 수고해 주었다. 그리고, 음애공(諱 闇), 현령공(諱 熙業), 사과공(諱 熙敬) 합제 세일사 분정은 초헌에 참판공파종회 준수 보춘서원 관리위원장, 아헌에 사인공파종회 용화 회장, 종헌에 좌의정공파종회 종교 회장이 헌작하였고, 축관 및 집례, 집사는 계속 같은 분이 맡아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세일사를 마친 후 참례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준비한 식사를 하며 종친간 돈독의 시간을 가진 후 행사를 모두 마쳤다.

- 참판공파종회 총무 용 記

좌통례공파종회

■ 좌통례공(諱 克堅) 선조 세일사 봉행

좌통례공파종회(회장 택수)는 2023년 11월 22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소재 좌통례공 이하 선대조 묘소에서 서울, 경기, 대구, 칠곡, 조치원 등 전국에서 버스 3대 및 승용차 등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이후로 최대 인원인 약 100여 명의 후손이 모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좌통례공(諱 克堅) 선조를 시작으로 숙부인(淑夫人) 창령성씨(昌寧成氏)와 부사공(諱 攀), 증 우의정(諱 英符)의 순서로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제례의 주관은 좌통례공파 종회에서 하였지만 숙부인 할머니의 제례 집행은 칠곡종회(회장 승호)에서 집행하였다. 제례에 앞서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좌통례공의 입피입향 사유와 행장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먼저 좌통례공 선조의 초헌에는 택수 파종회 회장, 아헌에 용두 대종회 상임부회장, 종헌에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집례에는 광암종회 용면 총무, 독축에는 쌍호당공 종회 종우 회장이 집사에는 부사공 후손 용원, 흥재, 종오, 종승 현중이 맡아서 수고해 주었다. 1차 임피에서의 세일사 봉행이 끝난 후 임피면사무소 소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끝낸 참례자들은 귀가하는 길에 나포면 강정리 갑조에 모셔진 좌통례공의 장 증손 교리공 묘소를 끝으로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모든 제례를 마쳤다.

이 지면을 빌려 날씨도 매우 춥고 바람이 불어 제례를 못기 어려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길을 해주신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총회공종회 경래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등 여러 방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좌통례공 (휘 극견) 세일사 봉행

참고로 숙부인 창령성씨 할머니님 초헌에는 석담 종회 수상 회장. 아헌에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택동 위원장, 종헌에 문경공파종회 영재 현종이 집례에는 대구경북종친회 수생 회장, 축에는 칠곡 동산회 택후 회장, 좌우 집사에는 수덕, 수호,

상철, 태석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또한 부사공 선조 세일사 봉행의 초헌에는 쌍호당종회 종우 회장, 아헌에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종헌에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증 우의정(장령공) 초헌에는 별좌공종회 종균 회장, 아헌

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종헌에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이 헌작하고 집례에는 용면, 축에 종무, 좌우 집사에 홍재, 종오, 종승, 용원 현종이 맡아서 수고해 주었다

- 좌통례공파종회 총무이사 용주 기

■ 좌통례공파 부사공계 쌍호당 청백리공(諱 重慶) 세일사 봉행

좌통례공파 부사공계 쌍호당 청백리공(휘 중경)종회(종회장 종우)에서는 2023년 11월 26일 청백리공 서세 456주기 세일사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 산 1번지 선영에서 거행하였다. 초헌에 종영 15대 종손, 아헌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종헌에 부사공종회 주홍 회장이 헌작하고, 축에는 영수 현종, 집례는 종회 종후 회장, 집사에 종오, 종승, 종국, 태재 현종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이어서 제8대부터 17대까지 26위의 합동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공의 자는 숙희(叔喜)이고 휘는 중경(諱 重慶)이다. 좌통례공 극견(諱 克堅)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반(諱 攀)이고, 아버지는 지평으로 있을 때 현량과(賢良科) 폐지 의견이 제시되자, 그 불가함을 거론하여 「이 과거가 비록 불공평하다고는 하지만 만약 파하면, 그 사람들은 종신토록 금고를 당하는 것이니, 어찌 쓸만한 사람까지 다 버릴 것인가!」 라고 적극 반대하다가 화근이 되어 탄핵

을 받아 파직된 영부(諱 英符)이며, 장령(掌令) 수경(諱 首慶)의 동생이다. 중종 12년(1517) 태어나 중종(中宗) 38년(1543) 계묘 식년시 생원 2등으로 합격하여 명종(明宗) 1년(1546) 병오 증광시(增廣試) 병과 19위로 급제한 뒤 1548년 예문관 검열로 처음 벼슬길에 들어섰다.

명종 4년(1549) 정언으로 언론 활동을 하였고, 명종 5년(1550) 수찬이 되었고, 문재에 뛰어나 예문관과 홍문관에서 주로 활약하였다. 1550년 병조 좌랑을 역임하면서 춘추관 기사관으로 『중종실록(中宗實錄)』과 『인종실록(仁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명종 7년(1552)에는 헌납이 되었고, 1553년 대사간을 거쳐, 명종 16년(1561) 예조참의·부제학이 되었다.

명종 18년(1563) 이조참판을 지내고 1564년에 대사헌을 겸하는 등 여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윤원형(尹元衡)의 소윤파가 득세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하자, 이를 내심 두려워한 명종은 이량(李樑)으로 하여금 이를 대적하게 하려고 총애를 베풀어 이조판서 벼슬까지 주었으나 도리어 주어진 권세로 반역을 꾀하다 탄핵받아 1563년 이량은 강계로 귀양 가고 관련자들도 멀리 귀양 갔다.

이때 공은 이량의 일당으로 몰려 파직되었으나, 명종 20년(1565) 풀려나와 부호군(副護軍)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다시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며, 뒤에도 여러 차례 정쟁에 휘말려 치폐가 거듭되었다. 공은 오랫동안 언관으로 있었음에도 치부하지 않았으며 명종 때에는 청백리로 추앙받았다. 선조 즉위년(1567) 졸하였다. 묘는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 계좌이고, 배위는 정부인 무송윤씨(茂松尹氏)이다. 「진양속지(晉陽續誌)」 권2와 「인물조(人物條)」에 이름이 올랐다.

- 쌍호당공종회 회장 종우 기



쌍호당 청백리공(휘 중경) 세일사 봉행

문숙공파종회

■ 문숙공(諱 之剛) 서세 596주기 세일사 봉행

광주이씨 문숙공파 종회(회장 용중)에서는 2023년 11월 12일 11시, 파조(派祖) 휘 지강(諱 之剛) 선조의 596주기 세일사를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67-1번지 소재 묘전에서 본·방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하였다.

갑자기 쌀쌀해진 아침 날씨로 제례를 준비하는 종인들의 마음을 조리게 하였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햇살이 기운을 포근하게 해줌에 따라 후손들의 걱정을 들어 주었다. 이날 세일사는 내빈 소개, 인사말, 문숙공 선조의 행장 소개, 분정 발표, 제례 집전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종회 용중 회장은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을 통해 송조돈종(崇祖焯宗)은 종중 발전의 원동력이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문숙공 파조의 세일사에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후손 여러분과, 특히 각별한 마음으로 천리 먼 길을 와 주신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과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 내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건상 직접 오시지는 못하였으나, 물심으로 참배의 예를 대신 해주신 대종회 주영 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파 회장님

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은 문숙공 할아버지는 인품과 학문이 당대에 으뜸가는 훌륭한 선조님으로 우리 광주이씨가 명문 세족으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되신 분이기에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을 이어받아 문숙공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해 주었다. 이어 사회를 맡은 용관 현종이 문숙공(諱 之剛) 파조의 행장 소개(지면에는 생략키로 한다)와 아울러 제례 분정을 발표하였다.

헌관으로는 초헌에 본 종회 용중 회장, 아헌에는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이, 종헌에는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가 헌작하였다. 축에는 용문 대종회 감사, 좌 집사에는 주경, 극래 현종, 우 집사에 광영, 용철 현종이 집전하고, 제례는 본 종회 형래 부회장이 집례를 맡아 봉행하였다.

제례 봉행이 끝난 후 참배자들은 묘전에 앉아 복주와 음복을 하면서 답소를 나누다가 증식이 마련된 온정면 소재리에 소재한 종중 회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덕담을 주고받으며 종인들 간의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문숙공(諱 之剛) 파조의 세일사에는 지난 수십 년간 빠짐없이 참석하던 원로 종친 어른 여러분이,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참석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과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던 반면, 대구·부산 등 타향에 살면서 생업에 바빠 그동안 참석

못 했던 장년층 종인들 여러 명이 올해 처음 파조 시제에 참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덧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또 특별한 사항은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현재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인 성래 종인 형제분이 이번 파조 세일사에 제주를 준비하여 조상님들의 뿌리를 찾아 먼 길을 오셔서 처음으로 맞이한 종인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고, 중국에 살고 있는 일가들의 소식도 다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올 문숙공(諱 之剛) 파조의 세일사를 마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송조의 정신을 새롭게 다지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지를 깊이 고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 문숙공파종회 회장 용중 기



문숙공(휘 지강) 세일사봉행

목사공파종회

■ 목사공(諱 之柔) 세일사 봉행

초 겨울 날씨에 걱정을 했지만 목사공 세일사 봉행일인 11월 19일 날씨는 온화하여 목사공께서 복이 많으시다는 덕담으로 날씨 걱정은 덜었다.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과 종익 총무이사, 문신 재무이사, 병진 대종회 부회장 네 분이 세일사 봉행 1진으로 도착하여 제수를 묘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세일사 봉행 준비는 시작된다. 이윽고 종윤 대종회 대의원과 보은지역 종중의 종인들께서 도착하고 판도령공계 영균 사적심사위원회와 종인들이 도착하였다. 2023년 목사공 세일사가 경기도 하남 고골 선영에서 봉행되었다. 금년도 세일사는 초헌에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 아현에 내

빈으로 참석하신 대종회 양재 총무이사, 종헌에 50여 년간 종회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황성지역의 현감공계 창수(昌洙) 종인이 헌작하였다.

창수 종인은 목사공으로부터 정원공(貞元公) - 극창공(克昌公) - 부춘공(傅春公)으로 이어지는 황성 현감공계의 주손이라 목사공 세일사 봉행은 더욱 뜻이 깊었다. 집례는 종익 총무이사, 독축은 석구 감사, 집사는 치구 부회장, 종윤 대의원, 영균 사적심사위원, 문신 재무이사가 맡아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금년 목사공 세일사 봉행은 목사공파종회 산하 다양한 소계파의 후손들이 새롭게 참석하여 후손된 도리를 다 하였다.

목사공의 장자이신 일원공(一元公)의 후손들인 예빈시정공계는 좌운, 종윤, 춘학, 성우 종인께서 참석했고, 둘째 아드님이신 중원공(中元公)의 후손들은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였으며, 셋째 아드님이신 정원공(貞元公)의 후손들은 황성 현감공계 종익, 창수, 봉수, 주현 그리고 관북계 병진, 판

도령공계 용진, 향진, 종수, 영균, 화준, 경준, 재필, 훈길 종인이 참석하여 가장 많이 참석하였으며, 넷째 아드님이신 계원공(季元公)의 후손들은 춘신, 명호, 치구, 태호, 구영, 문신 종인이 참석하여 후손 된 도리를 다 하였다. 목사공파종회는 금년 세일사를 계기로 앞으로 새로운 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더욱 많은 후손들이 함께하는 목사공 세일사 봉행을 다짐한다.

- 목사공파종회 총무이사 종익 기



목사공(휘 자유) 세일사 봉행

광주이씨 전주 전북 종친회 발대식을 기념하며



전주종친회원, 전주 청장년회원, 남원종친회원, 고창종친회원, 고산지산공 회원 등 130여 명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가는 계절 2023년 11월 6일 12시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 중앙로 51번지 전주 한가람 회관에서 본관이 광주이씨 둔촌공 후손으로 선조의 유덕을 받들어 종친간의 화목과 선영 수호, 시제 봉향 및 후손에 대한 충효 사상과 보학교육에 힘써,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이씨 전주전북종친회 발대식을 총무 홍재의 사회로 규약 따라, 유래 종원을 회장으로 만장일치 종원분들께서 박수로 인준을 받아 신임되었다. 신임 유래 회장의 자랑스러운

광주이씨 전주전북종친회 발대식을 선포하니, 참석한 종원 전부가 열렬한 박수로 화답하여 개회를 선언하였다.

이어 국민의례와 우리 광주이씨 혈족은 유사 이래 오직 하나를 향한 선비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거룩하신 선조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부끄럽 한 점 없는 후손으로 굳게 뭉쳐 아름다운 삶과 앞날을 위하여 더욱 빛나는 명문의 선봉이 될 것을 선조께 머리 숙여 다짐하고 유래 회장이 회장으로써 광주이씨 전주전북종친회 영광과 발전을 향한 소신과 각오를 다짐하는 인사 말씀을 하고, 총무 홍재의 2023년 10월16일 전주종친회, 전주청장년회, 남원종친회, 고창종친회 대표 12명이 규약제정과 회장에 유래, 부회장 승래, 용수, 종위, 상재를 추대하며 총무에 홍재, 재무에 종대 종원, 감사에 병재 대부로 임원 구성됨을 경과보고 하였다. 이어 회장이 임원과 내빈을

소개 올리고, 용두 대종회 부회장의 광주이씨 전주전북종친회 앞날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축사를 하고, 용숙 전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의 답사가 있었다.

협찬금으로 유래 회장 금일봉, 광주이씨 대종회 회장, 충희공종회 회장, 양호당 종중, 통덕량 종중, 전주종친회, 전주청장년회, 남원종친회, 고창 청장년회 협찬과, 문경공파종회 회장, 승덕재 종회 회장, 동고종회 회장, 전민일보 일요시사 회장의 축하 화환 보내주심을 광고하고, 화합과 단결을 약속하고 지키기 위하여 사진 촬영 후 회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갈비탕으로 몸보신까지 하며 온화하고 즐거우며 웃음꽃을 피워가며 반주로 흥을 돋우며 맛있는 식사와 밀감, 커피까지 즐겁고 보람된 시간으로 발대식을 기념하였다.

- 전주 전북 종친회 총무 홍재 기

광주이문(廣州李門) 이종석(李宗錫) 현종 헌법재판소장 취임



2023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광주이문(廣州李門) 이종석(李宗錫) 현종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어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루어져 12월 1일 0시부터 제8대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새로 취임한 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961년 2월 광주이씨의 집성촌인 경상북도 칠곡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60회),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군법무관을 거친 후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1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 2월 제33대 수원지방법원장, 2018년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 중 2023년 12월 대한민국 제8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였다.

본문의 자랑인 종석 현종은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 등으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STX 등 기업의 회생 사건을 다수 맡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기업회

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기업회생절차의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종석 현종의 부친인 수홍(壽鴻) 현종은 종사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광주이씨 대종회 부도유사,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종석 현종은 광주이씨 22대로 좌통례공의 18대손이며 가계는 좌통례공 克堅-摯-德符-遵慶-光復-榮雨-道長(생부는 석담선생 濶雨)-元祿(박곡공, 대사간)-周命-世瑀-愿中-東淵-寅運-以陽-沂秀-相標-冕榮-壽鴻-宗錫으로 이어진다. 광주이씨 18만 종인은 자랑스런 종석 현종의 헌법재판소장 취임을 축하한다.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Table with 12 columns: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3年 12月 1日

<제394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柱榮
編輯人 : 李容頭
主幹 : 李柱暘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